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의 관계

김 영 미 · 현 은 강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choolers' Fa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Fathering Practice

Kim, Young Mi · Hyun, On Kang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choolers' fa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fathering practice. A survey containing questions about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fathering role performance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171 preschooler's fathers in the Seoul, Kyung-gi and Incheon province areas. Data was organized using Windows SPSS 12.0 and it was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α , t-test, Anova,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reschoolers' fathers had positive psychological life positions, and tried to understand and have conversations with their children. Second, the fa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the father's occupation.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thering practices as related to age and occupation. Third, the psychological life position of the preschooler's father was related to his fathering practices.

Key word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fathering practice, preschooler

I.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 위주의 자녀 양육 및 가사'는 부부의 공동 역할 및 교환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박성연 1985), 아버지를 '잊혀진 양육자'라 칭하면서 자녀교육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Lamb 1975).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동,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아버지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역할수행을 적절하게 수행하느냐

접수일: 2007년 4월 30일 채택일: 2007년 6월 7일

Corresponding Author: Hyun, On Kang Tel: 82-32-860-8111 Fax: 82-32-865-5228
e-mail: okhyun@inha.ac.kr

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이 달라지며(송요현·현은강 2006, Hart et al. 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강관해 2000; 재인용).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자아성장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아버지 역할수행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을 꼽고 있다. Nugent(1991)와 박선이(1991)는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참여정도가 높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관심사나 걱정을 잘 들어주고 칭찬이나 애정표현을 더 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명숙(1992), 김옥엽(1982), 위영희(197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을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Veneziano와 Rohner(1998)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계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김윤경(1993), 박영애와 인영옥(1998), 장미나(1994) 등의 연구에서는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역할수행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력수준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권연희 1986; 이숙 1988; 최경순 199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역할수행을 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반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 참여도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윤종희·이인숙 1993; 이행옥 1988; 이화진 1995)도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구명이 필요하다.

근래에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변인으로써 아버지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이외에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인 측면 즉, 인성특성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 역할과의 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정말순 1998; Grossman et al. 1998).

개인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태도를 두 가지 형태로 취한다(Bern 1961; Harris 1971). 즉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를 Berne(1961)은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자세',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자세',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자세'로 분류된다.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는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및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장 건강한 자세로,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은 우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고(Allen 1973), 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안정자극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 Webb 1975).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자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보다 이지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결혼가정 출신자녀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Thamm 1972), 권태와 부적응행동이 나타났다(Allen 1973). 그리고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하고 비경쟁적이며 타인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나 만족감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멸적 특징을 갖는 경우가 있어 개인문제, 직업문제, 대인관계 등에서 부적응적인 면이 나타난다(Berne 1961).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자녀들의 사회·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6세 이전에 유아들은 부모나 부모대리자들의 양육태도, 즉 금지명령과 허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James 와 Jongward(1971)는 인간은 생의 초기에 부모와 더불어 갖게 되는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심리적 자세도 형성한다고 하였다.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심리적 제한점으로 인해 자녀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되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다(Salovey & Mayer 1996). 또 부모가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 자신의 심리적 편견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행동적 단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가진 이러한 특정한 대인지각상의 편견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이나 유아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Stollak 등(1982)에 의한 연구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자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관련된 연구 위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형옥과 안선희(2001), 이정화와 김보경(2005)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과 관련성을, 최미숙과 김미숙(2005)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기질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에 관한 연구는 김경희(2000)의 연구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이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는 다음과 같다. Cowan과 Cowan(198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Parke(1981)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그의 존중감은 강화되어 부모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부모 역할 수행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Livy-Shiff 와 그의 동료들(1989)은 아버지의 인성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발견하였고, 특히 인성특성상 대인관계에 관심이 높은 아버지는 영아와의 놀이행동, 유친 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성특성상 새로운 지적, 정서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아버지들은 영아의 보호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이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버지가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람직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자

세를 지각하고 자신의 심리적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먼저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입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심리적 자세유형 및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은 아버지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2곳, 놀이학교 1곳에 재원중인 유아의 아버지 242명을 대상으로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포하였고, 회수된 총 171부를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34세 이하가 60명(35.1%), 35세 이상이 111명(64.9%)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이 92명(54.1%)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졸이하는 42명(24.7%), 대학원 이상이 36명(21.2%)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은 사무직·공무원이 58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관리직 36명(21.1%), 기술직 33명(19.3%), 판매직 25명(14.6%), 기타 19명(11.1%)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Age	
under 34	60(35.1)
35 over	111(64.9)
Total	171(100.0)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24.7)
college or university	92(54.1)
graduate school	36(21.2)
Total	170(100.0)
Occupation	
sales man	25(14.6)
office worker • public official	58(33.9)
technical worker	33(19.3)
professional • management	36(21.1)
etc	19(11.1)
Total	171(100.0)
Gender of children	
male	87(50.9)
female	83(48.5)
Total	170(100.0)
Age of children	
1~3	60(35.1)
4~5	74(43.3)
6~7	37(21.6)
Total	171(100.0)

2. 연구 도구

1) 심리적 자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이병래(1997)가 제작한 '심리적 자세 검사지'의 부모용 검사도구 중 아버지용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재현(1994), 류태보(1996), 제석봉(1996) 등의 저서를 부분적으로 참조한 '심리적 자세 측정 문항'과, 김홍용(1987)이 한국판으로 번안 제작한 '생활 자세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하였으며, Hess(1977)가 제작한 Life Position Inventory(LPI)를 참고한 것이다. 이 도구는 특정 생활 장면과 관련된 문항이 제시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자기긍정(14문항), 자기부정(14문항), 타인긍정(14문항), 타인부정(14문항)의 네 가지 심리적 자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6문항이다.

자기긍정 문항에는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등이 있으며, 자기부정 문항에는 “나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열등감이 많은 편이다” 등이 있다. 한편 타인긍정 문항에는 “사람들은 사귀어 보면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생각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타인부정 문항에는 “사람들은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릴 때부터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많았다” 등이 있다.

설문의 응답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긍정의 정도를 묻는 문항(자기긍정, 타인긍정)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1점, ‘아니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아주 그렇다’는 5점을 배점하였다. 그러나 부정의 정도를 묻는 문항(자기부정, 타인부정)에서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의 점수의 배점을 역으로 계산을 하여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검사를 위해 선정된 56개 문항에 대한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자기긍정에 대한 심리적 자세’ 요인은 .84, ‘자기부정에 대한 심리적 자세’ 요인은 .88, ‘타인긍정에 대한 심리적 자세’ 요인은 .65, ‘타인부정에 대한 심리적 자세’ 요인은 .75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여 조합하게 되며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긍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정, 자기부정-타인부정의 4가지의 심리적 자세 유형이 나타난다.

심리적 자세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자기긍정, 자기부정)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타인긍정, 타인부정) 점수는 각 문항이 28개씩이므로 점수는 28점에서 14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즉 자기긍정 및 자기부정에 대한 점수를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로 처리하였고, 타인긍정 및 타인부정

에 대한 점수는 타인에 대한 점수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타인에 대한 점수는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85점 이상이면 긍정의 자세로, 85점 미만이면 부정의 자세로 구분하였다.

2) 역할수행 검사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알아보기 위해 Canfield (1995)가 제작한 아버지 역할 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s Scales: FPT)를 조선휘(1998)가 번안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윤서영(1998), 박순덕(2005), 송요현과 현은강(2006)등의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자녀와의 대화(4문항), 양육자의 일관성(5문항), 자녀양육 역할(7문항), 남편의 역할(5문항), 부양자 역할(7문항), 자녀 이해도(7문항), 자녀에게 애정표현(6문항), 자녀교육 역할(7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총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대화' 요인은 .87, '양육자와의 일관성' 요인은 .69, '자녀양육 역할' 요인은 .87, '남편의 역할' 요인은 .79, '부양자 역할' 요인은 .81, '자녀 이해도' 요인은 .88, '자녀에게 애정표현' 요인은 .92, '자녀교육 역할' 요인은 .8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rogram for Social Science)12.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별로 t검증, F검증 및 Scheffe 추후검증,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심리적 자세유형, 역할 수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의 평균과 심리적 자세 유형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평균은 90.04이며,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평균은 94.10였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및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85점 이상이면 긍정의 자세로, 85점 미만이면 부정의 자세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자세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자기긍정-타인긍정'이 64.9%(111명)로 절반이상의 아버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부정-타인긍정' 25.7%(44명), '자기부정-타인부정' 7.6%(13명), '자기긍정-타인부정' 1.8%(3명) 순이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수행에 있어서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4.32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의 대화가 4.09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양자 역할 3.87, 자녀교육역할 3.66, 남편역할 3.65, 자녀 이해도 3.60, 양육의 일관성 3.44 순으로 나

Table 2. Psychological life position (N=171)

Variable		M (min, max)
Psychological life position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neself	90.04 (69, 126)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thers	94.10 (78, 116)
	Variable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ype	I'm OK, You're OK	111(64.9)
	I'm not OK, You're OK	44(25.7)
	I'm OK, You're not OK	3(1.8)
	I'm not OK, You're not OK	13(7.6)
	OK	171(100.0)
Total		

Table 3. Fathering practice (N=171)

Variable	M(SD)
conversation with children	4.09(.59)
consistency of children	3.44(.59)
role of children fostering	3.03(.98)
Fathering practice role of husband	3.65(.65)
role of supporting	3.87(.54)
showing love toward children	3.60(.62)
understanding on children	4.32(.63)
role of children education	3.66(.64)

타났다. 가장 평균이 낮았던 하위변인은 양육역할이었으며, 평균은 3.03이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평균적으로 스스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며,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개인적 배경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

아버지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심리적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심리적 자세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96.37)가 전문직·경영직에 종사하는 아버지(86.53)보다 자신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이었다(F=3.428, p<.05). 그러나 기타직업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미한 결과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98.84)는 기술직(92.09), 전문직·경영직(91.22)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타인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4.027, p<.01), 이는 타인과 접촉기회가 많은 판매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역할수행에는 차이가 있었다. 34세 이하의 집단은 35세 이상의 집단보다 자녀와의 대화, 남편 역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역할을 잘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경영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역할을 다른 직종에 비해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역할을 다른 직종에 있는 아버지에게 비해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다른 직종에 비해 자녀에 대

Table 4. Psychological life position by father's characteristics

Variable	n	Psychological life position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neself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thers
		M(SD)	M(SD)
Age			
under 34	60	89.40(10.38)	93.33(7.84)
35 over	111	90.39(11.64)	94.51(8.74)
t		-.549	-.873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	88.52(10.14)	93.21(8.00)
college or university	92	91.38(11.70)	95.41(8.72)
graduate school	36	88.72(10.91)	91.92(7.85)
F		1.297	2.592
Occupation			
sales man	25	93.64(12.02) _{ab}	98.84(9.62) _a
office worker · public official	58	89.47(10.51) _{ab}	93.34(8.23) _{ab}
technical worker	33	88.52(10.78) _{ab}	92.09(7.51) _b
professional · management	36	86.53(9.68) _a	91.22(7.70) _b
etc	19	96.37(12.71) _b	96.05(7.66) _a
F		3.428*	4.027**

**p< .01. *p< .05.

Table 5. Fathering practice by father's characteristics

Variable	N	Fathering practice							
		conversation with children	consistency of children	role of children fostering	role of husband	role of supporting	showing love toward children	understanding on children	role of children education
Age									
under 34	60	4.23(.51)	3.38(.63)	2.89(.94)	3.82(.51)	3.99(.52)	3.61(.65)	4.48(.59)	3.63(.65)
35 over	111	4.03(.62)	3.47(.57)	3.04(.98)	3.58(.67)	3.85(.51)	3.58(.60)	4.24(.64)	3.66(.64)
t		2.043*	-.837	-.902	2.514*	1.588	.243	2.215*	-.246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	4.13(.62)	3.35(.65)	3.26(.89) _a	3.55(.78)	3.75(.60)	3.56(.71)	4.27(.65)	3.56(.68)
college or university	92	4.04(.59)	3.47(.55)	3.06(1.02) _{ab}	3.65(.56)	3.89(.33)	3.58(.58)	4.31(.65)	3.64(.63)
graduate school	36	4.16(.54)	3.49(.63)	2.70(.91) _b	3.81(.65)	4.00(.47)	3.71(.59)	4.41(.54)	3.80(.59)
F		.708	.765	3.344*	1.678	2.394	.665	.506	1.366
Occupation									
sales man	25	4.34(.64)	3.54(.53)	3.30(1.01) _{ab}	3.74(.62) _{ab}	4.03(.57)	4.03(.54) _a	4.58(.51)	4.00(.59) _a
office worker · public official	58	4.01(.56)	3.53(.53)	3.02(1.06) _{ab}	3.73(.58) _{ab}	3.89(.45)	3.57(.59) _{ab}	4.28(.63)	3.66(.62) _{ab}
technical worker	33	4.10(.61)	3.32(.67)	3.09(.85) _{ab}	3.30(.55) _b	3.71(.52)	3.30(.59) _b	4.16(.77)	3.33(.64) _b
professional · management	36	4.07(.56)	3.31(.62)	2.61(.77) _b	3.83(.68) _a	4.01(.55)	3.59(.59) _{ab}	4.36(.51)	3.69(.60) _{ab}
etc	19	4.03(.60)	3.52(.62)	3.43(1.02) _a	3.54(.77) _{ab}	3.64(.61)	3.68(.64) _{ab}	4.32(.61)	3.68(.62) _{ab}
F		1.495	1.448	3.082*	3.857**	2.946	5.596***	1.711	4.270**

**p< .01. *p< .05.

한 애정표현 및 자녀교육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의 관계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에 대한 자세와 자녀와의 대화($r=.281, p<.01$), 자녀에 대한 일관

성($r=.170, p<.05$), 자녀 양육 역할($r=.634, p<.01$), 부양자 역할($r=.222, p<.01$),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r=.312, p<.01$), 교육 역할($r=.257, p<.01$)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인에 대한 자세와 역할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자세는 자녀와의 대화($r=.234, p<.01$), 자녀 양육역할($r=.529, p<.01$),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r=.204,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 수행 중 자녀 양육 역할은 아버지의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에 있어서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fathering practice

Fathering practice	Psychological life position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neself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thers
conversation with children	.281**	.234**
consistency of children	.170*	.056
role of children fostering	.634**	.529**
role of husband	.133	.018
role of supporting	.222**	.061
showing love toward children	.312**	.204**
understanding on children	.142	-.034
role of children education	.257**	.129

**p< .01. *p< .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서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유아기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는 대다수의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역시 긍정적인 심리 자세를 가진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심리적 자세 유형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심리자세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아버지들이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임까지임을 고려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남성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아버지는 스스로 자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고 인식하였고, 또한 자녀와의 대화 및 부양자 역할도 보통이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현대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자세의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기술직이나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타인에 대한 자세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판매직은 타인을 직접 접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에 비해 비교적 타인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할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경희 2000; 김선에 1999)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34이하의 아버지가 35세 이상의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대화, 남편 역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자녀 사랑을 더 많이 한다고 밝힌 윤서영(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그 외에도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박선이 1991; 조선화 1998; Nugent 199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서 여가부분, 가사부분 및 총 자녀양육 참여도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밝힌 이완정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는 하위변인 중 '자녀양육역할'에만 나타났으며, 다른 하위변인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학력에 따라서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다고 결론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본 연구 결과는 교육수준과 아버지 역할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윤종희와 이희숙(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 아버지 역할수행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에게 비해 애정표현 및 자녀교육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유의하게 높았던 앞선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다른 직종에 비해 타인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이었던 판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빈번하게 하며 자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와 아버지 역할수행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할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다하는데 꾸준하며,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자녀 양육 역할을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심리적 자세와 관련하여 Abell과 Abell(1976)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을 뜻하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을 뜻하며, 또

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것은 자신도 자율적이며 타인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역할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비롯하여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보다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조사 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한정하였다는 점과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편중되어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전 지역, 전체 아버지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까지는 아버지 심리적 자세, 어머니 심리적 자세에 대한 연구가 각자 진행이 되어 왔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함께 조사하여 부모의 심리적 자세에 따라 부모 역할 수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역할 수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심리적 자세를 가질 때, 보다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모의 긍정적 심리적 자세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역할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역할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비롯하여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보다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가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연희(1986) 아버지 역할과 그에 대한 자녀들의 기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숙(1992) 유아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 지각과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지각.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애(1999)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엽(1982) 아버지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경(1993)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거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옥·안선희(200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5-25.
- 김홍용(1987) 가정환경변인과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태보(1996)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완정·현은강·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1), 155-168.
- 우재현(1992)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상호교류분석)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제석봉(1996) 인간관계. 대구: 한국성장상담연구소.
- 박선이(1991, 5, 1) 5월은 가정의 달: 아이들과 함께 노는 아빠들. 조선일보, p13.
- 박성연(1985)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제고. 생활과 가정.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편.
- 박순덕(2005)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간 차이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인영옥(1998)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이상적 양육행동과 실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연구. 교육연구(한남대학교), 6(1), 81-101.
- 송요현·현은강(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한국아동학회지 27(5), 19-34.
- 윤종희·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 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1-202.
- 윤서영(199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이 사회적

-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영희(1979)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화·김보경(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대한 모-자간 일치정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97-119.
- 이행옥(198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Fathering)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말순(1998) 아버지의 인성특성 및 청소년기 배경변인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1991)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숙·김미숙(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ell RG, Abell CW(1976) *Own your own life*. New York: Berkley Publishing Corporation.
- Allen JG(1973) Existential position and adjustment in a college population. *TA Journal*, 3(4).
- Allen JG, Webb(1975). Stroking, existential position, and mood in college student. *TA Journal*, 5(3).
- Berne E(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Grove Press.
- Berne E(1966)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New York: Grove Press.
- Canfield K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owan PA, Cowan CP (1988) Changes in marria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ust we blame the baby? In G.Y. Michaels and W.A. Goldberg (Ed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 114-1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man FK, Ploock WS,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arris TA(1971) *I'm OK-You're OK*.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Hart CH, Ladd G, Burleson BR(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outcomes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James MR, Joungward D(1978). *Born to wi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Lamb ME(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evy-Shiff R, Shris H, Mogilner MB (1989) Mother and father preterm infant relationship in the hospital preterm nursery. *Child Development*, 60, 93-103.
- Nugent JK(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the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2), 475-485.
- Parke RD(1981) *Father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Mayer JD(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s*. New York: Basic Books.
- Stollak GE, Mess LA, Mishaels GY, Buldain R, Ctlin T, Poritee F(1982) Parental interpersonal perceptual style, child adjust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61-76.
- Thamm R(1972) Self-acceptance of others: An exploration into personality syndromes. *TA Journal*, 2(4).
- Veneziano RA, Rohner RP(1998)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parental involvement, and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rural,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35-343.